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11.9.(목) 08시부터	배포	2017.11.9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		담 당 자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93)	

제 목 : 금융위원장, 외국 기관투자자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

- 금융위, 글로벌 기관투자가 「2017 회계개혁」 IR 개최 -


1. 회의 개요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7.11.9(목)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초청하여 마련한 「2017 회계개혁」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
-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

< 행사 개요 >

- 일시 · 장소 : '17.11.9(목) 오전 8:00~9:30, 한국거래소 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원장(주재),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*, 공인회계사회 · 상장회사협의회 · 코스닥협회 회장 등
- * Societe Generale, Deutch Bank, BNP Paribas, Standard Chartered Bank, Bank of America, Black Rock, Schroders

2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

The diagram consists of a large triangle at the top labeled 'Long-lasting Earnings'. Inside this triangle is a smaller triangle labeled 'Institutional investors (Stewardship)'. Below the large triangle are two smaller triangles side-by-side, labeled 'Accounting Reform' and 'Governance Disclosure'.

- 회계(Accounting) 개혁, 기업지배구조(Governance) 선진화,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(Institutional Investors)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(Long-lasting Earnings)에 대해 설명하면서,
-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(AGILE) 투자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

-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임
 -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, 기업부채,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,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
 -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음
- ⇒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,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

< 회계개혁 (Accounting Reform) >

-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.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'18.11.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,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
-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,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·관리해나갈 계획임
-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*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 - *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'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'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→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

<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(Governance Disclosure) >

-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
 -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*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
 - * 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」(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)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
 -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

<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(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-lasting Earnings) >

-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
 - 국민연금*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 공시의무 관련 부담**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
 - *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(~'17.12월)
 - ** 5%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'단순투자'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'경영참여'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
 -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

3. 향후 계획

-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* 운영
 - * 금융위 부위원장(단장), 유관 기관, 민간전문가로 구성 ('17.10.12, 출범)
-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
-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·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(연내 등)
-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

< 금융 용어 설명 >

■ 내부회계관리제도

- 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규정, 조직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통칭하며, 현재 상장사 및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시행 중

■ 스튜어드십 코드(Stewardship Code)

- 위탁자*가 맡긴 돈을 자기 돈 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·운용하는 '기관투자자의 책임'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

* 예 : (국민연금) 가입자, (자산운용사) 투자자, (보험사) 고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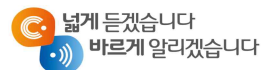
■ 주식 대량보유공시제도 (소위 5% rule)

- M&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(5% 이상)에 주식 보유·변동 상황 공시를 의무화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< 스튜어드십 코드 >

1.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지분공시 부담 완화

- ☐ (추진 배경) 5% 이상의 지분 보유 시, 그 보유목적(경영권 영향 vs. 단순 투자)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가 달라짐
 - “경영권 영향” 목적이면 “단순 투자” 일 경우에 비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다 상세히, 더 신속히 보고해야 할 의무 발생
 - 5%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‘단순투자’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‘경영참여’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것을 우려
- ☐ (주요 내용)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
 - * (예시)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지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
- ☐ (향후 계획) 국민연금, 상장회사협의회, 금감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 (‘17.11월 중)

2.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

- ☐ (추진 배경) 외부감사법 전면개정(‘18.11.1.시행)으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 “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*” 신설
 - * (제11조제1항제8호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
- ☐ (주요 내용)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 한정하여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
 - 그 외 신청요건으로서 지분율, 지분 보유기간 등도 검토
- ☐ (향후 계획) 회계개혁 TF 등을 통해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(‘18.2월 입법예고 계획)

<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>

1.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

- ☐ (추진 배경) 금년부터 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」의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상장사가 “comply or explain” 방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“자율공시”하는 제도 운영 중
 - '17.11.1일 기준, 「기업지배구조 보고서」를 공시한 기업은 KOSPI 상장사 784개 중 70개사*(9.36%)로 참여율이 낮은 편
 - *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금융회사(39개사)를 제외하면,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불과
 - * 일본은 도입 첫 해 참여율이 약 76%(1,934개사 중 1,476개사)
- ☐ (주요 내용)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(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사항)
- ☐ (향후 계획) 상장협·거래소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(12월중)

2. 기업지배구조 평가 개선

- ☐ (추진배경)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
 - *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기관 설립 등 외형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, 대규모 기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
- ☐ (주요 내용) 감사위원회,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, 평가기법도 선진화
- ☐ (향후 계획) 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하여 전문가 간담회, 선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('18.上)